

오제 습지의 이모저모

오제의 습지는 ‘이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제처럼 기온이 낮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시든 식물이 잘 부패하지 않고 겹쳐 쌓여갑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이탄’입니다. 오제의 연평균 기온은 4℃로서 냉장고 안과 거의 같기 때문에 시든 식물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부패한 물질이 퇴적되어 수천 년에 걸쳐 응축되면 이윽고 이탄토(泥炭土)로 변합니다. 오제의 이탄이 발달하는 속도는 식물의 종류나 기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1 년에 약 0.7~0.8mm 입니다. 만약 방문자가 나무 길에서 내려와 이탄토에 1cm 정도 움푹 팬 자리를 만들면 습지가 원래대로 회복될 때까지 10 년이 걸립니다. 연구자들은 오제가하라의 이탄층이 현재의 5m 두께가 되기까지 6,000~8,000 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제가하라는 장소에 따라 살고 있는 식물이 다릅니다. 이는 장소마다 습지가 형성된 과정이 달라서 땅속의 상태에 따라 자라기 쉬운 식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제가하라에는 ‘지당(池塘)’이라고 불리는 연못이 1,800 군데 넘게 있습니다. 크기는 직경 2m 에서 100m 이상, 깊이도 수십 cm 에서 3m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지당: 높은 산의 습지나 이탄지에 있는 연못이나 늪.

오제가하라의 습지 대부분은 강의 범람이 반복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강에서 범람한 물이 빠질 때마다, 높은 독으로 분리되어 강 양쪽이 습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림 참조). 이들 습지대에는 갈대와 잔디를 닮은 사초, 조름나물(*Menyanthes trifoliata*) 등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부분적으로 부패하여 이탄이 되고, 우묵한 곳을 메워 평탄한 습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제누마 호수에 가까운 습지는 형성 과정이 다릅니다. 원래 연못이나 늪이었던 곳에 토사가 쌓여 얕아지면서 수생식물들이 자생하기 시작했고 이 식물들이 시들어 이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습지는 대개 지표면이 주위 지하수면과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저층습원’이라고 불립니다. 이탄이 강물로부터 받아들이는 영양분은 오제누마 호수에서 자라는 물과초(*Asian skunk cabbage*)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